

조선시대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계보적 연구

A Hierarchical Study on Archives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Medical Field in Chosun Period

韓 美 鏡 (Han, Mi-Kyu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비교 분석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1 단회와 단과 의과방목 |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2 목활자와 필사본의 단과 의과방목 |
| 1.3 선행연구 | 4.3 의과방목과 의과선생안 |
| 2. 의과 입격자 기록물 | 4.4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계보 |
| 3. 의과방목 현전본의 조사 | 5. 결 론 |
| 3.1 단회 의과방목 | <참고문헌> |
| 3.2 단과 의과방목 | |

<초 록>

이 논문은 조선시대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조사와 계보적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의과방목과 팔세보, 선생안과 성원록 등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종류를 간략하게 고찰하고, 일부 새로 조사한 활자본 단과(單科) 방목과 단회(單會) 방목을 포함하여 의과방목 현전본을 조사하였다. 구성과 형식 및 내용을 대상으로 단과와 단회의 의과방목을 비교하고 목활자본과 필사본의 단과 의과방목을 비교하였다. 나아가 의과방목과 『의과선생안』을 비교 분석하여 의과 입격자 기록물임을 밝혔다.

이상의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단회와 단과의 의과방목과 목활자본과 필사본의 단과 의과방목 및 『의과선생안』 등 입격자 기록물의 계보적 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단과 의과방목의 바탕은 단회의 의과방목이므로 이후 지속적인 단회의 의과방목 발굴이 필요하며, 조선시대 중인관련 기록물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要語: 의과, 의과방목, 팔세보, 성원록, 의과선생안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bib4u@kgu.ac.kr)

접수일: 2018년 8월 20일 최초심사일: 2018년 9월 9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18일
서지학연구, 제75집, 193-212,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5.193]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and hierarchical study of on archives related to successful applicants for medical science major in Chosun times.

This study briefly reviewed on the types of archives related to persons of medical science such as list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medical science, *Palsebo*, *Seonsaengan*, and *Seongwonrok* and investigated the edition of hereditary texts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medical science including newly-found printed books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single subjects and single sessions.

And this study made comparison between successful applicants for single subjects and single exam sessions in terms of structure, formation, and contents as well as the comparison between the list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medical science of wood-printed type and hand-written manuscripts. Furthermore, this study proved they are archives on the successful applicants for medical science though the comparison between *Euigwa Bangmok* and *Euigwa Seongsangahn*.

Based on the above-mentioned investigations and analyses, this study drew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archives on the successful applicants such as the list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single subjects and single sessions, the list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medical science of single subject in the form of wood-printed type and hand-written manuscripts and *Euigwa Seonsaengan* etc.

This study suggested the steady research for the list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single session because the basis for the list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single subject is that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single session. And it also recommend the posterior studies and research for archives related to middle men of Chosun period through steady excavation, investigation, and research.

Key words: Medical Science, List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Medical Science Major(*Euigwa Bangmok*), *Palsebo*, *Seongwonrok*, *Euigwa Seongsangahn*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조선시대 과거 중 잡과는 기술관(技術官) 선발 시험으로 의관은 기본적으로 잡과 시험을 통하여 출세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잡과에는 문무과와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치르는 증광시(增廣試)가 있었다. 잡과는 초시(初試), 복시(覆試)로 운영되며 합격자(즉 入格者)에게 백패(白牌)가 주어지고 방목(榜目)이 작성 및 배부되었다.

조선시대 잡과는 태조원년(1392) 8월 입관보이법(入官補吏法)이 제정되면서부터 실시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전해지는 『의과방목(醫科榜目)』에는 조선 초기와 중기의 일정 기간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즉, 단과의 의과방목은 1498년(연산 4)부터 시작되고 있으나 1531년(중종 26)까지 34년간은 기록이 없다. 다행히 이 부분은 일부 단회방목들이 발견되어 보충되고 있다.

신분사회인 조선시대에 대과방목과 소과방목 및 문집류 등과 같은 문과와 무과 진출자와 인물들에 대한 기록물은 다양하다. 또한 양반 이외의 계급으로 역대 서얼 관계 내용을 모아놓은 『규사(葵史)』와 『규사속편(葵史續編)』, 정조 때 이진흥(李震興)이 향리들의 사적을 집약 및 정리한 『연조귀감(緣曹龜鑑)』, 조희룡(趙熙龍)이 1844년에 저술한 전기집이자 여향인의 인물역사서인 『호산외기(壺山外記)』, 그리고 조선 후기에 유재건(劉在建)이 기록한 하층계급출신의 인물건문록인 『이향건문록(里鄕見聞錄)』 등 인물과 신분의 연원을 밝히는 기록들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잡과를 통하여 배출된 중인 관련 기록물은 입격자 기록물인 방목과 족보 성격의 팔세보 등과 같은 기록물이 대부분이며, 실제 방목은 중인 계급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유일한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즉, 방목은 1차적인 정보원으로서 팔세보 등과 계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들은 방목과 관련 기록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논하고 있는 반면 서지적 연구를 통한 계보적 관계 분석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조선 시대 중인 계급 중 의과 분야와 인물 및 중인계급 연구의 중요 기록물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와 계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잡과 중 의과를 대상으로 의과 입격자 기록물에 대한 조사와 판본간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여 계보적 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새로 조사한 단회(單會) 의과방목과 활자본 단과(單科) 방목을 포함하여 의과방목 현전본을 조사하고, 단과와 단회의 의과방목 및 목활자본과 필사본의 단과 의과방목 간의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아가 『의과선생안』과 의과방목과의 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계보적 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조사와 분석 및 계보적 고찰을 목적으로 역사적 연구와 문헌연구

및 서지학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 입격자 기록물로 1) 의과방목(단회와 단과 의과방목), 2) 팔세보와 등제보, 3) 성원록, 4) 의과선생안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의과방목 현전본 조사는 단회 의과방목과 단과 의과방목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단회 의과방목의 경우 ‘한국역대인물정보종합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10종 이외에 새로 조사된 4종을 포함하여 14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단과 의과방목의 경우 13종의 국내외의 활자본과 필사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활자본은 국내의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영남대학교 소장본 외에 일본의 故 三本榮과 천리대학교 천리도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하며, 필사본은 규장각과 미국의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중 영남대 소장본과 일본 소장본은 문헌과 관련 기록을 통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단회와 단과의 의과방목의 비교를 위하여 단회의 의과방목은 새로 추가 조사된 고려대학교 소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단과의 의과방목의 경우 활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하고, 필사본은 규장각 소장본과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목활자본과 필사본의 단과 의과방목의 비교를 위하여 활자본은 수록시기 외에 판본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하고, 필사본은 규장각 소장본과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3) 의과방목과 『의과선생안』의 비교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의과방목과 서울대 소장본 『의과선생안』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상의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비교는 구성과 형식 외에 시험관련정보와 입격자의 개인신상정보 및 가족관련정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잡과방목과 일부 입격자 기록물 그리고 의학분야 관련 문헌 및 인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과 입격자 기록물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를 포함한 잡과방목에 대한 연구가 주로 선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일부 연구자에 의하여 잡과방목의 자료적 성격 또는 잡과방목으로 한국학 자료의 외연 넓히기, 잡과 입격자의 신분과 성격 그리고 잡과 입격자의 타과 진출 사례 분석, 잡학교육개혁론 등이 고찰되었다.¹⁾ 또한 일부 잡과방목의 의사학적 가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도 있다.²⁾

1) 이남희, “잡과방목과 한국학 자료의 외연 넓히기,” 『장서각』 32집(2014), 320-329.; 이남희, “雜科合格者の 他科進出 사례 분석,”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5권 2호(2014), 205-233.; 우현정, “유형원의 잡학교육개혁론 재고-“잡과방목”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3권 2호(2013), 63-93.; 金玄穆, “朝鮮中期 雜科入格者の 身分과 性格: 16세기 雜科單回榜目の 分析,” 『역사학보』 139집(1993), 35-66.

2) 류희영, “문무잡과(文武雜科) 방목(榜目)의 의사학적(醫史學的) 가치(價値),”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집(1990), 3-5.

둘째, 단과로서 의과방목에 대한 연구는 찾아지지 않으며, 관련 입격자 기록물로서 조선후기 의과 팔세보와 장서각 소장본 『의팔세보』에 대한 자료적 성격과 특징이 고찰되었다.³⁾ 그 외에 『성원록(姓源錄)』을 대상으로 서울 중인 가계의 유형과 규모 및 정체성 고찰이 이루어졌다.⁴⁾

이외에 의과방목을 포함한 잡과방목 인물과 의관 등에 대한 목록이 있다.⁵⁾ 특히 근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전체 단과방목과 단회방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⁶⁾ 조선시대 의학 인물 서지로서 『조선의인지(朝鮮醫人誌)』와 『조선시대 의관총목록』이 발행되었다.⁷⁾ 그중 『조선시대 의관총목록』은 각 인물들에 대한 내용 중 과거나 취재 입격자의 생몰년, 가족관계, 자명(字名)은 방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과 인물과 의관 목록은 조선시대 의과 분야의 인물과 신분 연구와 관련 연구에 매우 유용한 서지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의과방목과 의과팔세보 등의 자료로서의 가치와 중요성 및 수록 내용이나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다만 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는 찾아지지 않으며, 의과방목 현전본의 종합적 조사와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계보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의과 입격자 기록물

잡과 입격자의 성명 등을 기록한 명단으로 작성 배부된 방목은 중인 관련 대표적 기록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목은 이후 관련 기록물 생산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즉, 방목을 기본으로 하여 팔대조까지 기록하고 있는 족보류 팔세보와 대표적인 중인 계급의 성씨계보로 알려져 있는 『성원록』과 『속성원록』 등이 생산되었다. 의과 입격자 기록물에 대한 기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목(榜目)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적은 명단으로서 방(榜) 또는 방(榜)이라 쓰기도 하였다. 『세조실록(世祖實錄)』 권제18, 9장 앞쪽, 세조 5년(1459) 11월 9일의 다음과 같은 기술을 통하여 “본조에서 각 년의 방목을 상고”의 기록으로 미루어 방목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목이 합격자 사람에 대한 명단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 청컨대 생원·진사의 향시와 한성시에 두 번 합격한 사람과 문과의 향시와

3) 이남희, “조선 후기 의과팔세보(醫科八世譜)의 자료적 특성과 의미: 현전 자료와 그 수록 년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2집(2010. 3), 231-262.; 이남희, “장서각 『醫八世譜』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장서각』 21집(2009), 165-195.

4) 김두현, “『姓源錄』을 통해서 본 서울 중인 가계 연구: 중인 가계의 유형과 규모 및 정체성,” 『서울학연구』 39집(2010), 41-77.

5) 이성무, 『조선시대 잡과합격자 총람』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이성무, 최진옥 [공]편저, 이남희 DB편찬, 『雜科榜目』 [컴퓨터파일], (서울: 동방미디어, 2002).

6)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7) 박훈평, 『朝鮮醫人誌』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2).;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박훈평, 『朝鮮醫人誌』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2).

한성시에 한 번 합격한 사람을, 본조에서 각 년의 방목을 상고하여 성균관으로 보내서 국학에 나가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⁸⁾

한편, 『세종실록(世宗實錄)』 3권, 세종 1년(1419) 4월 20일(甲午) 3번째 기사는 잡과방목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다음과 같다.

“예조에서 잡과 입격자를 발표하고, 홍패를 주고 술과 과일을 대접하였다. 역과가 15명, 음양과가 9명, 의과가 9명, 율과가 9명으로 모두 출신(出身)을 주었다.”⁹⁾

이 기사를 통해 1419년에 예조에 의하여 잡과가 주도되고, 의과로 기본 9명이 출신되었으며, 잡과 입격자가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의과 또한 입격자가 발표됨에 따라 방목이 작성 배부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의과방목은 국가에서 의과 입격자에게 배부되는 것으로 의과 입격자 기록물이자 1차 정보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팔세보(八世譜)는 본인을 기준으로 선대 8세와 외조, 장인을 족보의 형식으로 편성한 전문적인 족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통 문관, 무관, 음관 등 출신별 집단의 팔대조(八代祖)까지를 기록한 족보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다만 일부 고종(高宗) 때 최문현(崔文鉉)이 엮은 『중경과보(中京科譜)』의 예와 같이 성종(成宗) 때부터 고종 때까지의 문과 및 생원(生員)·진사(進士)에 급제한 개성(開城) 지역 사람들로 엮은 팔세보도 있다. 의과의 경우 다른 잡과와 함께 『의역주팔세보(醫譯籌八世譜)』로 엮어 전하기도 하고, 의과만을 대상으로 『의등제보(醫等第譜)』, 『의과팔세보(醫科八世譜)』(규장각, 장서각 등 소장), 『의보(醫譜)』(천리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제목으로 전하고 있다.

셋째, 선생안(先生案)은 각 관아에서 전임 관원의 주소와 성명, 관직명과 생년, 본적 등을 기록하여 배치하는 일종의 문부(文簿)이며, 안책(案冊)이라고도 하였다. 선생안의 종류는 다양하여 1) 판서, 참판, 참의와 같은 특정 관직을 대상으로 한 선생안, 2) 삼공(三公), 의정부낭청(議政府郞廳), 비변사 등의 기관 전체를 단위로 한 선생안, 3) 대사헌, 부제학, 사인, 사록 등의 동일 관직을 대상으로 한 선생안, 4) 전랑(銓郎), 옥당(玉堂), 호당(湖堂), 상대(霜臺) 등의 관아와 관직의 별명으로 기술된 선생안, 5) 지방 관아의 각도 감사와 수령을 대상으로 한 도 선생안(都先生案)과 읍(邑) 선생안, 6) 향리의 수반을 대상으로 한 경주(慶州)의 호장(戶長) 선생안, 7) 향교, 향청, 서원 등의 각종 임원록, 제명록, 좌목 등이 있다.¹⁰⁾ 그중 의관 관련 선생안은 두 번째의 기관별 선생안으로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된 내의(內醫)의 명단 성격의 『내의원선생안(內醫院先生案)』이나 『태의원선생안(太醫院先生案)』이 있으며, 내의원의 직첩(職牒)을 받고 근무한 인물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내과선생안(內科先生案)』은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일종으로 이상과는 다르다(4.3 참조).

넷째, 성원록(姓源錄)은 조선시대 말기 이창현(李昌鉉 1850-1921)이 지은 성씨 계보책으로 이는

8) 禮曹啓, … 請二度中生員進士鄉漢城試者, 一度中文科鄉漢城試者, 本曹考各年勝目, 移送成均館, 令赴學, 從之.

9) 禮曹放雜科榜, 給紅牌, 饋酒果. 譯科十五人, 陰陽科九人, 醫科九人, 律科九人, 皆賜出身.

10)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종합DB』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잡과의 역관, 의관, 산관, 율관, 음양관, 서자관(書字官), 화공 등 중인계층의 계보를 수록하고 있다. 속성원록(續姓源錄)도 있으며, 온갖 성씨의 계보를 모아 엮은 『만성보(萬姓譜)』에서 찾을 수 없는 일부 성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의과방목 현전본의 조사

이장에서는 의과방목의 현전본을 조사하고자 한다. 현전하는 의과방목은 당해 기간의 의과 입격자 명단인 단회방목과 잡과 중 의과 입격자를 종합하여 간행한 단과방목으로 구별할 수 있다.

3.1 단회 의과방목

한국역대인물정보종합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단회방목으로 지금까지 발굴된 단회방목은 13종으로 그중 의과가 수록되어 있는 단회방목은 총 10종이다. 기존의 단회방목 외에 이번 조사를 통하여 추가 조사된 4종의 의과방목을 포함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단회 의과방목

왕대	연도와 종류	단회방목명	소장처	비고
중종	2년(1507) 식년시	① 冲齋先祖府君及第榜目 ② 正德二年文武雜科榜目	① 충재권별 종손가	① 권별(權機) 증가전적 ② 보물 제896-3호 • 9명
	8년(1513) 식년시	① 癸酉文武榜目 ② 正德癸酉司馬榜目	② 경상대학교, 玉山書院	② 보물 제524-1호, 경남유형문화재 제405호 • 9명
	20년(1525) 식년시	① 文武雜科榜目 ② 萬曆八年庚辰三月十五日文 科別試殿試	② 고려대학교 晩松文庫	② 선조 13년(1580) • 9명
	35년(1540) 식년시	庚子式年文科榜目	고려대학교 晩松文庫	• 9명
	38년(1543) 식년시	癸卯式年榜目	계명대학교 도서관	• 9명
명종	4년(1549) 식년시	嘉靖己酉式年試雜科榜目	Edward. E. Wagner	• 9명
	19년(1564) 식년시	甲子式年文武科榜目	충남대학교 도서관	• 9명
선조	원년(1568)	隆慶元年丁卯十一月初二日文 科覆試榜目	국립중앙도서관(古6024-217)	• 9명
	3년(1570) 식년시	隆慶庚午文武榜目	고려대학교 만송문고(晩松文庫)	• 7명
	9년(1576) 식년시	丙辰增廣司馬榜目	고려대학교 만송문고(晩松文庫)	• 7명
	33년(1600) 식년시	萬曆二十八年庚子式年退 行於辛 丑夏榜目	하버드엔칭도서관	• 9명

* 진한색: 추가 조사된 단회 의과방목

이상과 같이 단회 의과방목을 수록하고 있는 중종 2년(1507) 식년시의 『정덕이년문무잡과방목』과 중종 8년(1513) 식년시의 『정덕계유사마방목』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소장상황을 추가한 것이며, 선조 원년(1568)의 『융경원년정묘십일월초이일문과복시방목』과 선조 13년(1580)의 『만력팔년경진삼월십오일문과별시전시』는 실물조사로 추가한 것이다(<표 2> 참조). 그중 후자의 간인년은 만력 8년 즉 명종 22년이나 의과방목의 입격자 명단(沈肱□, 李芝, 李鄭臣, 張世傑, 金元弼, 柳潏, 金彦臣, 鄭裕, 閔思誠)은 한국연대인물정보종합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중종 20년(1525)과 같다(<그림 5>, <그림 6> 참조).

<표 2> 추가 조사된 단회 의과방목

소장처	서명	판본과 서지사항	비고
국립중앙도서관	隆慶元年丁卯十一月初二日文科覆試榜目	• 금속활자본(甲寅字)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宣祖 1(1568) • 1冊(28張): 四周雙邊 半郭 20.6 x 14.8 cm, 有界, 9行16字 註雙行, 黑口, 內向2葉花紋魚尾 : 28.3 x 19.1 cm	• 국중 古6024-217 BA6024-217
고려대도서관	萬曆八年庚辰三月十五日文科別試殿試	• 금속활자본(乙亥字)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宣祖 13(1580) • 1冊: 四周單邊 半郭 21.8 x 15.0 cm, 有界, 9行17字, 上下黑口, 內向2葉花紋魚尾 : 27.7 x 18.7 cm	• 만송 貴 388 1580 • 의과방목: 중종 25(1525)

단회 의과방목은 단과 의과방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가치가 높다. 이들은 의과 급제후 발급받은 방목 또는 충재권별중손가에 전해져 오던 『충재선조부군급제방목』과 같이 후손에 의하여 선조의 급제방목이 함께 엮여져 전해온 것이다. 즉, 단회방목은 의과방목만으로 현전하거나 문무과 방목이나 사마방목과 함께 엮여 있다. 단회 의과방목은 단과 의과방목과 수록 내용은 유사하나 구성과 형식은 일부 차이가 있다(4.1 참조).

3.2 단과 의과방목

단과 의과방목은 활자본과 필사본으로 전하고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단과 의과방목

	소장처	서명	판본과 서지사항	수록시기
국내	고려대도서관	醫科榜目	• 목활자본 • 2卷2冊: 四周單邊, 半郭 25.1 x 17.7 cm, 有界, 6行小字雙行, 上黑魚尾 : 33.5 x 22.2 cm	• 화산 B8-A52 • 연산4(1498)-고종22(1885)
		醫科榜目	• 목활자본 • 零本1冊(全2卷2冊): 四周單邊, 半郭 25.3 x 17.8 cm, 有界, 6行小字雙行, 下白口, 上黑魚尾 : 33.5 x 22.0 cm	• 대학원 B8-A52-2 • 영조32(1756)-고종22(1885)

	소장처	서명	판본과 서지사항	수록시기
	국립 중앙도서관	醫科榜目	• 목활자본 • 2卷2冊: 四周單邊, 半郭 25.2 x 17.8 cm, 5行33字, 註雙行, 上黑魚尾 ; 33.4 x 22.1 cm	• 古朝26-19 • 연산4(1498)-고종11(1874)
	국사편찬 위원회	醫科榜目	• 목활자본 • 2권2책 • 校書館筆書體鐵字版 • [간행지불명]: [간행자불명], 高宗 28(1891). • 2卷 2冊: 四周單邊, 半郭 25.5 x 18cm, 有界, 6行 字數不定, 註雙行, 上內向黑魚尾 ; 33.5 x 22cm	• KO 중B13KB 21 • 연산4(1498)-고종28(1891) • 총서사항: 중추원자료
	규장각	醫榜	• 필사본 • 4권4책 중 책4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 7(1870) • 24.0 x 15.8 cm	• 古4652.5-16 • 연산4(1498)-고종7(1870) • 『잡과방목』 4책 중 제4책 • 목기: '今年戊午十月日'
	부천족보 도서관	醫科榜目	• 목활자본	• 061-000-001
		醫科榜目	• 목활자본	• 615-000-001
일본	영남대 도서관	醫科榜目	• 목활자본 • 1卷1冊(零本) • [刊地未詳]: [刊所未詳], 弘治 11年(1498) • 1冊: 四周單邊, 半葉匡郭: 25.1 x 17.6 cm. 有界, 6行 字數不定, 上下白魚尾: 25.1 x 17.6 cm.	• 古ㄷ 貴 50.48 의과방 - 1498 • 출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도서) 해제집, 영남대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 연구총서 :39
	三木榮	醫科榜目	• 목활자본 • 2권2책	• 著者藏: 『朝鮮醫書誌』, 1974 • 연산4(1498)-고종28(1891)
	천리대 도서관	醫科榜目	• 목활자본 • 2권2책	• 출처: 일본국회도서관: 조선학 보에 영인 수록 • 연산4(1498)-고종31(1894)
미국	하버드 엔칭도서관	醫科榜目	• 필사본 • 漢城: [刊寫者未詳], 高宗 17 • JPG1冊(71張) ; 33.0 x 20.3 cm	• TK 2291.7 1749.2 • 연산4(1498)-고종17(1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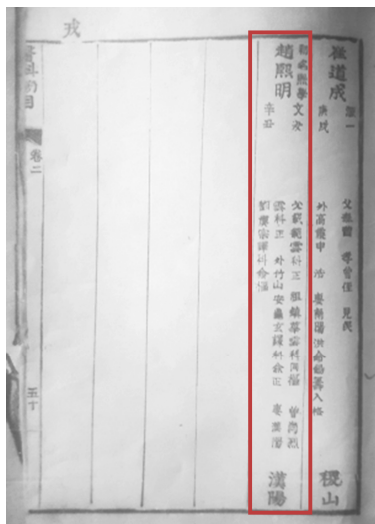
* 진한색: 필사본

이상의 표와 같이 현전하는 단과 의과방목은 10종으로 목활자본 8종과 필사본 2종이다. 목활자본은 기본적으로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처를 보면 국내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2종) 및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고, 일본의 삼본영과 천리대학 천리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목활자본은 모두 제1책은 연산군 4년인 1498년부터 영조 30년인 1754년까지 약 250년의 의과 입격자를 수록하고 있다. 반면 제2책의 경우 영조 32년인 1757년부터 수록하기 시작하여 마지막 수록시기는 고종 11년(1874)에서 고종 31년(1894)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록범위는 약 320년에서 340년으로 약 20년의 차이가 있다. 필사본을 포함하여 수록범위가 짧은 판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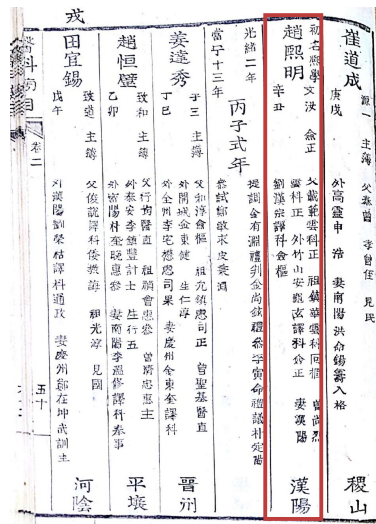
<표 4> 단과 의과방목의 수록범위

판본	수록범위	소장처	비고
활자본	• 연산4(1498)-영조30(1754)	• 영남대학교 도서관	• 제1책
	• 연산4(1498)-고종11(1874)	• 국립중앙도서관	
	① 연산4(1498)-고종22(1885) ② 영조32(1757)-고종22(1885)	① 고려대학교 도서관(화산 B8-A52) ② 고려대학교 도서관(대학원 B8-A52-2)	② 제2책
	• 연산4(1498)-고종28(1891)	① 국사편찬위원회 ② 일본 故 三木榮	
	• 연산4(1498)-고종31(1894)	• 일본 천리대학 천리도서관	
필사본	• 연산4(1498)-고종7(1870)	• 규장각	
	• 연산4(1498)-고종17(1880)	• 미국 하버드연칭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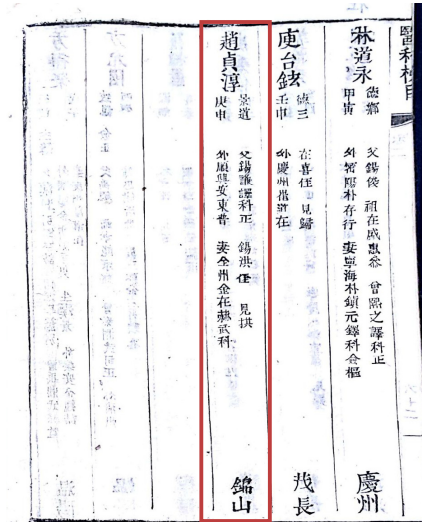
이상의 표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수록범위가 1874년으로 가장 짧고, 일본의 천리대학 천리도서관 소장본이 1894년으로 가장 길다. 각 목활자본의 수록범위가 다르므로 수록범위가 가장 짧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제2책의 마지막 면(A)과 고려대학교 소장본의 A와 동일한 면(B) 및 B의 제2책의 마지막 면(C)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의 C와 동일한 면(D)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다. 즉, 각 현전본의 제2책의 마지막 면(A, C)과 다른 현전본의 동일한 면(B, D)과 마지막 면(C)을 조사한 결과 모두 순차적으로 뒷부분에 추가하여 간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고려대학교 소장본(<그림 3> 참조)과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그림 4> 참조)을 살펴보면, 고려대학교 소장본이 <그림 2>와 달리 직함이 누락되어 있는 등 형식의 차이가 보이며, 이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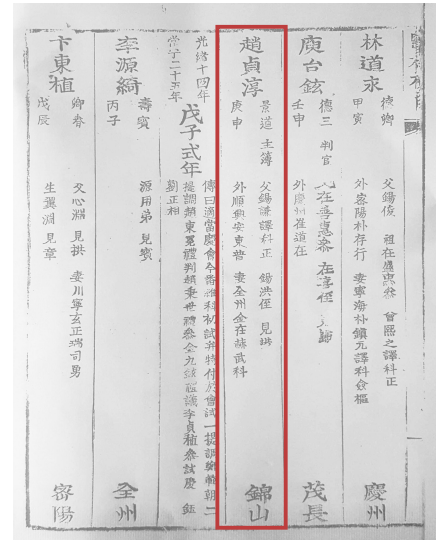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1874년 마지막 면(A)



<그림 2> 고려대 1874년 동일면(B)



<그림 3> 고려대 1885년 마지막 면(C)



<그림 4> 국사편찬위원회 1885년 동일면(D)

다음으로 의과방목 필사본은 규장각과 하버드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그림 11>, <그림 12> 참조). 그중 규장각 소장본은 4권 4책의 잡과방목으로 제4책이 의과방목 『의방(醫榜)』으로 고종 7년인 1870년까지를 수록범위로 하고 있으며, 하버드엔칭소장본은 4권 4책의 잡과방목 중 『의과방목』으로 고종 17년인 1880년까지를 수록범위로 하고 있다(<표 4> 참조).

4.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비교 분석

1) 단회와 단과의 의과방목과 2) 목활자본과 필사본의 단과 의과방목 및 3) 목활자본 단과 의과방목과 『의과선생안』을 대상으로 형식과 구성 및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계보적 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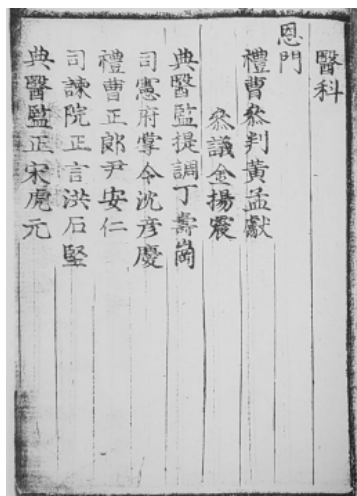
4.1 단회와 단과 의과방목

단과 의과방목은 연산군 4년(1498) 이래 34년간 기록이 누락되어 있으며, 누락부분의 일부는 단회방목들이 발굴되면서 보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단회와 단과의 의과방목의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면 내용은 유사하나 구성과 형식에서는 차이가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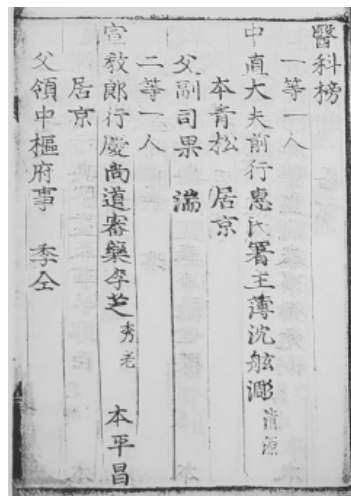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소장본(<그림 5>, <그림 6> 참조)인 1525년의 단회 의과방목 『만력판년경진삼월십오일문과별시전시』를 살펴보면 1) ‘은문(恩門)’ 이하 2) 시험관 관련 내용이 기술되고 장을 달리하여 3) 제목 ‘의과방’ 표기가 있고, 4) 등수와 인원수를 표기하고 있다. 이하 5) 각 등수별로 입격자의 직함, 입격자 성명, 자, 본관, 거주지와 6) 아버지의 직함과 명을 기록하고 있다. 즉 ‘은문’ 이하 시험관련사항과 개인신상정보 및 가족관련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단과의 의과방목은 목활자본 위주로 살펴보면 1) 중국 연호와 왕호로 기술된 시험년도와 시험명을 시작으로 2) 입격자의 성명과 자, 직함을 표기하고 있다. 3)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및 외가(父, 祖, 曾祖, 外, 妻)와 처가의 성명과 직함에 이어 4) 본관을 표기하고 있다. 즉 시험관련사항, 개인신상정보와 가족관련사항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그림 7> 참조).

단회 의과방목과 단과 의과방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회 의과방목은 거주지가 기술되어 있고 입격자의 직함은 합격시의 직함을 기술하나 단과 의과방목의 직함은 대표적 직함(또는 가장 낮은 직함)이 표기되고 거주지는 표기하고 있지 않는 점이다(<표 5> 참조). 이를 통해서 단회 의과방목이 발행된 후 단과 의과방목이 간인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집단 성격의 기록물이므로 이후 대표 직함을 보충하고 거주지보다는 본관 위주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고대 소장본 1525년 단회방목 첫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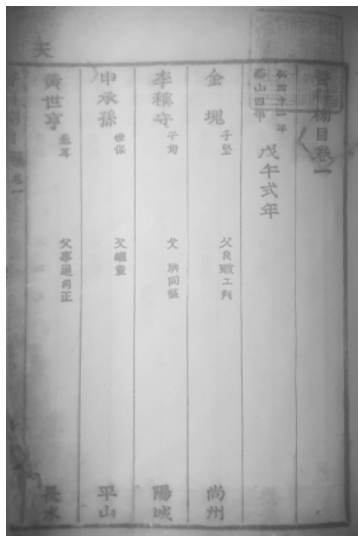


<그림 6> 고대 소장본 1525년 단회방목 셋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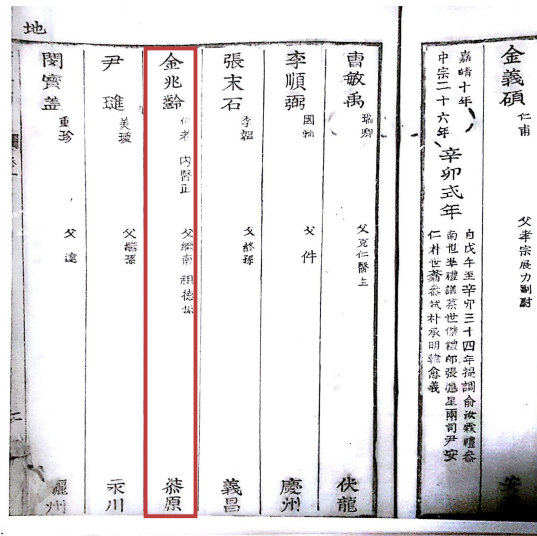
4.2 목활자와 필사본의 단과 의과방목

목활자본과 필사본의 단과 의과방목의 구성과 형식 외에 수록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활자본의 의과방목(<그림 7>, <그림 8> 참조)은 사주단변(四周單邊), 상흑어미(上黑魚尾) 및 유계(有界)의

판식(版式)을 갖추고 있으며, 좌측 광곽 윗부분에 천자문 순으로 순서를 매기고 있다. 1) 시험관련정보로 시험년도는 오른쪽에 중국 연호와 왼쪽에 왕호로 작은 글자로 표기하고, 시험명은 간지와 '식년' 또는 '증광'으로 큰 글자로 표기하고 있다. 2) 입격자의 개인신상정보는 큰 글자의 성명과 작은 글자로 자(字)를 앞세우고 이어 직함이 표기되고, 맨 아래에 큰 글자로 본관을 표기하고 있다. 3) 가족관련 정보는 작은 글자로 중간부분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와 외가와 처가의 순서로 관계, 성명, 직함으로 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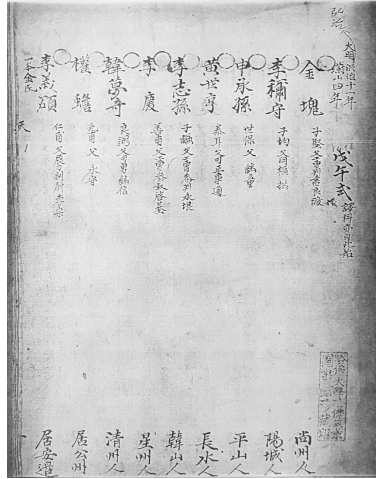


<그림 7> 국립중앙도서관 의과방목 권수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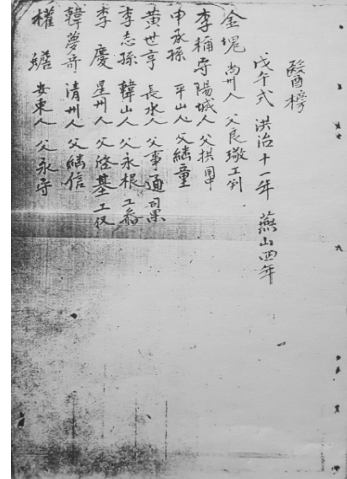


<그림 8> 국립중앙도서관 의과방목 중 김조령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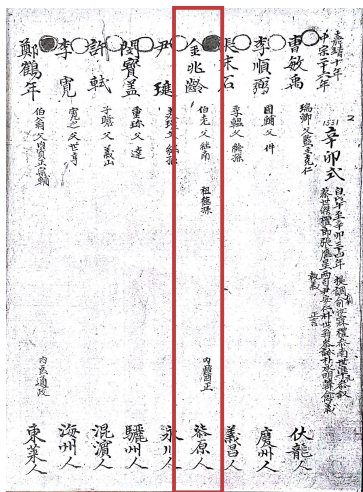
필사본 의과방목 중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그림 8>, <그림 9> 참조)의 『의과방목』은 판식은 없으며, 좌측 마지막 입격자 자(字) 옆에 천자문 순으로 순서를 매기고 있다. 1) 시험관련정보로 시험년도는 오른쪽에 중국 연호 위에 '대명(大明)'을 부기하고 좌측에 왕호를 표기하고, 시험명은 간지와 '식(式)' 또는 '증(增)'으로 큰 글자로 표기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연산 4년(1498)부터 시작되는 '식년시(戊午式)' 아래에 '역과역차시(譯科亦此始)'라 표기하고 있다. 2) 개인신상정보는 큰 글자의 성명과 작은 글자의 자(字)를 앞세우고 이하 가족 관련 내용 뒤에 직함을 표기하였으며, 맨 아래에 본관을 표기하되 '인(人)'을 부기하고 있다. 3) 가족에 관한 내용은 작은 글자로 입격자의 자(字) 바로 아래에 관계, 직함, 성명을 표기하고 있다. 중국 연호 위에 '대명' 부기와 '무오식' 아래의 '역과역차시' 표기는 이후 필사 또는 전사하면서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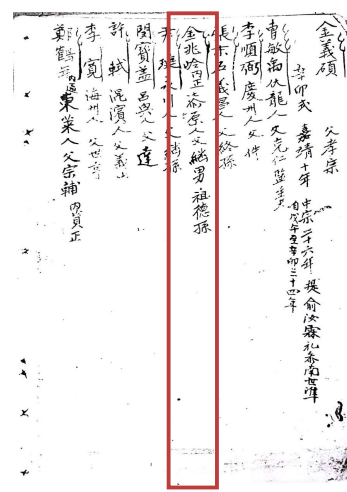
<그림 9> 하버드엔칭도서관 의과방목 권수제면



<그림 10> 규장각 의방 권수제면



<그림 11> 하버드엔칭도서관 의과방목의 김조령 예



<그림 12> 규장각 의방의 김조령 예

필사본 규장각 의과방목(<그림 10>, <그림 12> 참조) 『의방』은 판식은 없으며, 순서 또한 매기고 있지 않다. 1) 시험관련정보는 입격자 성명이 끝나는 위치에서 세 글자 내려서 한 줄로 시험명을 간지와 ‘式’ 또는 ‘壇’으로 표기하고, 시험년도는 중국 연호와 왕호로 표기하고 있다. 2) 개인신상정보는 글자 크기의 구분 없이 성명, 간략 표기한 직함(예로 ‘내의정(內醫正)’은 ‘내정(內正)’과 같이 표기), ‘인(人)’을 부기한 본관을 표기하고 있다. 3) 가족관련정보는 빈칸없이 관계, 성명, 직함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상의 목활자본과 필사본의 단과 의과방목을 단회방목과 비교하였을 때, 단과 의과방목에는 대표 직함이 있는 경우 이를 표기하고 있다. 또한 단회방목에 표기되어 있는 시험관련정보와 입격 당시의 직함과 거주지는 표기하고 있지 않으며, 본관을 강조하고 있다(<표 5> 참조). 이러한 수록 내용의 차이를 통해 의과 입격 시에 받은 단회방목을 참고하고 최소 1870년 또는 1874년부터 종합적으로 단과방목을 필사 또는 간인하면서 당시의 최근 정보로 수정 및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수록 내용

종류		판식과 차례	시험관련정보	개인신상정보1	가족관련정보	개인신상정보2
단회 의과방목		판식	은문 시험관 시험명 등수별인원수	직함 성명, 자 본관 거주지	- 부의 명과 직함	
활자본 단과 의과방목		판식 각면 차례	시험년도 시험명	성명	- 부, 조부, 증조부의 명과 직함 - 외가, 처가의 성명과 직함	본관
필사본 단과 의과방목	하버드 엔칭 도서관	각면 차례	시험년도 시험명	성명, 자	- 부, 조부, 증조부의 명과 직함 - 외가, 처가의 성명과 직함	직함 본관
	규장각		시험명 시험년도	성명, 직함 본관	- 부, 조부, 증조부의 명과 직함 - 외가, 처가의 관계 성명과 직함	
의과선생안		판식 각면 차례	시험년도 시험명	본관 성명, 자	- 부, 조부, 증조부의 명과 직함 - 외가, 처가의 성명과 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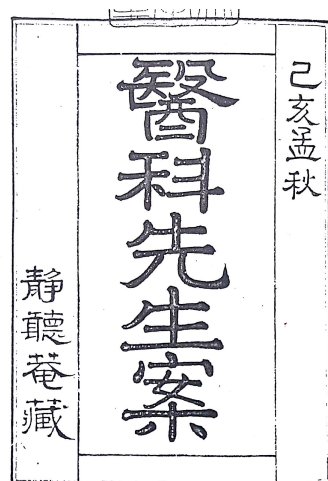
한편, 필사본과 활자본의 계보적 관계는 1) 필사본 이후 활자본의 간인, 2) 활자본 이후 필사본의 간사, 3) 활자본과 필사본의 독자적 제작의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사본의 경우 목활자본을 전사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목활자본과 필사본의 수록범위를 보면 모두 연산 4년(1498)부터 시작하고 있으나 최종 수록 범위는 다르다. 필사본 중 규장각 소장본은 1870년까지로 가장 이른 시기까지 수록범위로 하고 있어 필사본을 참고하여 목활자본으로 간인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은 수록범위가 1880년까지이고, 목활자본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수록범위는 1874년 이므로 수록범위 만으로 필사와 간인의 전후를 생각하기에 무리가 있다. 반면, 목활자본이 판본별로 점차적으로 수록범위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1870년까지를 수록범위로 하는 목활자본이 간인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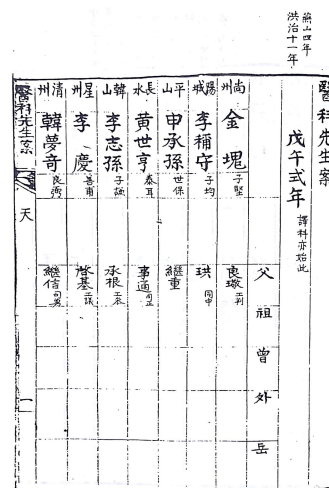
둘째, 필사본의 경우 수정의 흔적들이 보인다. 특히 하버드엔칭도서관 의과방목은 일부 입격자 성명의 오기가 있으며, 오기된 글자 옆에 오기 여부를 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목활자본의 기록을 보면 오기되어 있지 않다.

4.3 의과방목과 의과선생안

선생안은 각 관아(官衙)에서 전임(前任) 관원의 주소와 성명, 관직명과 생년, 본적 등을 기록한 기록물로 알려져 있다. 의관 관련 선생안으로 『의과선생안(醫科先生案)』, 『내의원선생안(內醫院先生案)』, 『태의원선생안(太醫院先生案)』 등이 있다. 그중 서울대학교 소장본(<그림 13>, <그림 14> 참조) 『의과선생안』은 표제지와 권수제면 및 관심의 제목 모두 『의과선생안(醫科先生案)』이며, 기해년인 1899년에 간인한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일종으로 분석된다. 우선 수록범위를 보면, 연산군 4년(1498)부터 고종 7년(1870)까지로 규장각 소장본 『의방』과 같다. 또한 실제 기술 내용은 1) 시험 관련정보로 광곽 윗부분에 왕호와 연호로 시험년도를 표기하고 시험명을 표기하고 있다. 2) 개인신상정보로 본관, 성명, 자, 직함을 표기하고, 3) 가족관련정보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가와 친가로 칸을 구분하여 성명과 직함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과선생안』의 권수제면(<그림 14>와 목활자본 <그림 7>과 필사본 <그림 9>와 <그림 10>의 권수제면을 비교하면 구성과 형식의 차이는 보이나 수록 내용은 같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한편, ‘역과역시차’라는 목활자본 의과방목과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의 의과방목과 같은 표기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과선생안』은 이후 생산된 의과 입격자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3> 의과선생안 표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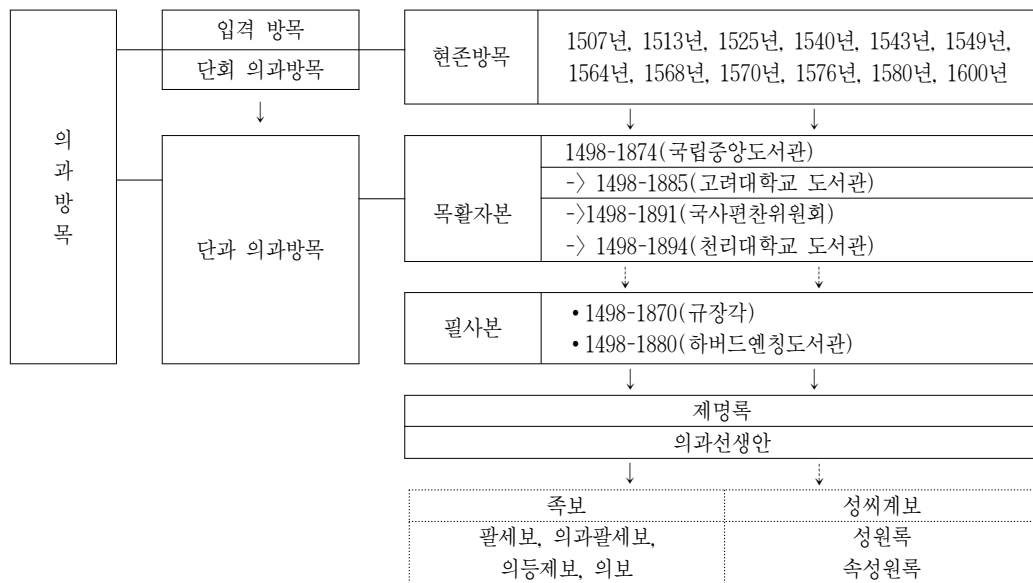


<그림 14> 의과선생안 권수제면

한편, 『내의원선생안』과 『태의원선생안』은 내의원에서 근무한 내의들의 인적사항과 활약상을 기록한 일종의 간략한 인물지이다.¹¹⁾ 의과방목과 『내과선생안』의 연산군 4년(1498) 첫면에 실려 있는 수록 의과 입격자(鄭堧, 李稱守, 申承孫, 黃世亨, 李志孫, 李慶, 韓夢奇)와 중종 26년(1531) 첫면에 실려 있는 의과 입격자(曹敏禹, 李順弼, 張末石, 金兆齡, 尹璫, 閔寶蓋)들을 살펴보면 모두 『내의원선생안』과 『태의원선생안』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즉, 『내의원선생안』과 『태의원선생안』은 의과 입격자 기록물이 아닌 기관별 선생안으로 『의과선생안』과는 성격이 다르다.

4.4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계보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조사와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계보적 관계를 도출하면 다음 <그림 15>와 같다.



* 점선: 추정

<그림 15>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계보

첫째, 단회와 단과의 의과방목과 목활자본과 필사본의 단과 의과방목의 비교 결과 단과의 의과방목은 단회의 의과방목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간인하면서 시험관 정보와 의과 입격자의 거주지는 빼고 직함은 단과 의과방목 간인 당시의 직함으로 대체하고 있다.

11) 安相佑, “『內醫院先生案』 편찬고,” 『서지학연구』 56집(2013), 439-473.

둘째, 단과 의과방목은 현전본에 의하면 1874년부터 목활자로 간인하기 시작하여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계속 입격자 정보를 추가하여 간인하여 왔다. 최종적으로 고종 31년인 1894년까지의 의과 입격자를 추가하여 1874년, 1885년, 1891년 및 1894년의 네 차례에 걸쳐 계속 추가 간인하였다.

셋째, 서울대학교 소장의 『의과선생안』은 기관 전체를 단위로 하는 선생안과는 달리 단과의 의과 방목을 재현한 의과 입격자 기록물이다.

넷째, 의과방목은 이후 족보 성격의 팔세보와 성씨계보인 성원록에 이르기까지 계보적으로 재현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팔세보의 경우 『역과보』의 사례와 같이 계보적으로 재현되었을 것이며,¹²⁾ 성원록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5. 결 론

조선시대 의과 입격자에 대한 기록은 기본적으로 의과 입격 후 제작 배부되는 입격자 성명 등의 명단인 방목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추가 조사한 활자본 단과방목과 단회방목을 포함하여 의과방목 현전본을 조사하였으며, 단회와 단과 의과방목 비교 및 목활자본과 필사본의 단과 의과방목의 비교 그리고 의과방목과 서울대학교 소장 『의과선생안』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단과 의과방목은 가장 이르게는 1870년에 필사되었고 1874년부터 목활자로 간인하기 시작하여 입격자 정보를 계속 추가하면서 최종적으로 고종 31년인 1894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간인하였다. 목활자본과 필사본의 단과 의과방목을 비교한 결과 수록 내용은 동일하나 구성과 형식의 차이가 있으며, 필사본의 수정 흔적, 수록 범위 등으로 보아 필사본의 경우 목활자본을 필사 또는 전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의과선생안』은 규장각 의과방목과 수록범위가 같고 단과 의과방목의 내용이 재현된 의과 입격자 기록물임을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계보적 관계를 도출하였다. 이에 연구의 결과가 의과 입격자 기록물 연구의 서지적 자료가 되고, 기존연구와 목록의 이해 및 향후 확장적 연구의 기초가 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단회 방목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단회 의과방목은 단회의 문무과방목에 함께 실리거나 개인 문집 등에 실려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조선 초기부터 잡과가 실시되었으므로 1498년 이전의 단회 의과방목의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조선시대는 신분사회로서 처음에는 의과 입격자의 성명 등을 기록한 명단으로 발행되었고, 이후 후손에 의하여 단회 의과방목으로 간인되고 이후 단과 의과방목으로 간인 및 필사되었다. 또한 『의과선생안』과 팔세보와 성원록 등의 집단 제명록과 족보 및 성씨 계보 등의 특수 기록물을 낳았다.

12) 韓美鏡, “역과방목과 역과보의 입격자성명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31(2005), 121-151.

이러한 기록물은 한 왕조의 중인계급으로 의학 분야에 종사한 인물과 계급 및 사회 이해에 중요한 인물정보원으로서 종합적 조사와 발굴 및 고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두현. “『姓源錄』을 통해서 본 서울 중인 가계 연구: 중인 가계의 유형과 규모 및 정체성.” 『서울학연구』 39집(2010). 41-77.
- 金玄穆. “朝鮮中期 雜科入格者の 身分과 性格: 16세기 雜科單回榜目の 分析.” 『역사학보』 139집(1993). 35-66.
- 류희영. “문무잡과(文武雜科) 방목(榜目)의 의사학적(醫史學的) 가치(價値).”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집(1990). 3-5.
-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 박훈평. 『朝鮮醫人誌』.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2.
- 三本符.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富士精版社, 1965.
- 三本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館會, 1974. 서울: 법인문화사, 1990[影印].
- 安相佑. “『內醫院先生案』 편찬고.” 『서지학연구』 56집(2013). 439-473.
- 우현정. “유형원의 잡학교육개혁론 재고 - “잡과방목”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3권 2호(2013). 63-93.
- 이남희. “잡과방목(雜科榜目) 해제: 잡과 잡과방목, 중인.”
<<http://people.aks.ac.kr/front/haeje/haeje.aks?h=Z#2>>.
- 이남희. “잡과방목과 한국학 자료의 외연 넓히기.” 『장서각』 32집(2014). 320-329.
- 이남희. “雜科合格者の 他科 進出 사례 분석.”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5권 2호(2014). 205-233.
- 이남희. “장서각 『醫八世譜』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장서각』 21집(2009). 165-195.
- 이남희. “조선 후기 의과팔세보(醫科八世譜)의 자료적 특성과 의미: 현전 자료와 그 수록 년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2집(2010). 231-262.
- 이남희. “조선시대 잡과방목(雜科榜目)의 자료적 성격.” 『古文書研究』 12권 1호(1998). 121-158.
- 이성무. 『조선시대 잡과합격자 총람』.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이성무, 최진옥 [공]편저, 이남희 DB편찬. 『雜科榜目』[컴퓨터파일]. 서울: 동방미디어, 2002.
- 이영아, 황상익. “한국 최초의 근대식 의사 김익남의 가문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8권 4호(2017). 1227-1248.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書誌學研究 第75輯(2018. 9)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韓美鏡. “역과방목과 역과보의 입격자성명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31(2005). 121-151.